# 내 집 싣고 방방곡곡…캠핑카 전성시대

## 광주·전남 등록대수 510대…10년새 40배 증가 국내 車업계, 변형 쉬운 SUV 출시 캠핑족 유혹

직장인 배모(46)씨는 주말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는다. 그는 국내에서 캠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부터 캠핑을 즐겼다. 차는 물론 캠핑이 가능한 SUV로 장만했다. 캠핑 도구는 모두 배씨 소유다. 그렇다고 캠핑도구로 자신의 모든 월급을 쏟아 붓진 않는다. 캠핑 중고용품점이 활성화 된지오래여서 이곳에서 구매하고, 될 수 있으면 고가의 캠핑카를 사는데 돈을 모으고 있다.

캠핑의 대중화에 따라 캠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캠핑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캠핑카(캠핑 트레일러 포함) 등록대수가 2007년 13 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510 대로 10년 만에 약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부터 캠핑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만 포함한 수치 로, 제작 이후 사용자 편의에 따라 '튜 닝'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캠핑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 난 2014년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을 발표하며 캠핑카의 구조변경을 허용 했다.

이에따라 캠핑카도 과거 승합차 개념 에서 레저, 의전, 비즈니스, 도심주행 등 다양한 활용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 뀌면서 국산차들은 물론 수입차까지 최 고급 사양의 미니밴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 는 캠핑카로 변형이 쉬운 SUV차종을 속속 출시하며 캠핑족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억원대 캠핑카 쏠라 티 컨버전을 지난 5월 출시했다. 쏠라티 컨버전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쏠라티에 다양한 특수장치를 추가한 미니버스다. 쏠라티 캠핑카는 샤워부스와 화장실, 가스레인지, 싱크대는 물론 국내 캠핑 카 최초로 2층형 침대를 장착해 실용적 인 공간을 갖췄다.

기아자동차도 지난 5월 캠핑카와 컨셉이 유사한 친환경 소형 SUV '니로'의고객 시승 이벤트를 진행, 차량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니로를 직접 체험하는 동시에 춘천숲 자연휴양림으로 1박2일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SUV차량의 강자를 자처하는 쌍용자 동차는 최근 뛰어난 활용성 및 경제성



을 갖춘 코란도 스포츠에 보다 강력한 파워트레인 탑재를 통해 역동성까지 한 단계 더 진보시킨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를 출시, 캠핑족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캠핑카의 성장세에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캠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 며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캠 핑용품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캠핑용품과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용품 의 성격이 전혀 달라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 캠핑업체 코베아 관계자는 "캠핑카는 주거의 개념으로 1박 2일로 바람 쐬러 나가는 기존 캠핑과는 수요 층 자체가 다르다"며 "많이 보편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가격 측면에서 장벽이 높아 쉽게 대중화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캠핑카 수는 10년 사이 20배 이상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46대에 불과했던 캠핑카는 올해 6월말까지 6768대로 늘었다. 또 캠핑카(트레일러) 운전을 위해 기존 대형 트레일러면허 취득없이도 소형견인차 면허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게한 '캠핑카 면허'를지난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그 수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9.03 (-10.58)

금리 (국고채 3년) 1.21% (0.00)

▶ 코스닥 700.90 (-2.82)

1110.00원 (+2.00) 1110.00원

## 7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14% '뚝'

#### 거래대금도 전월비 13%↓

광주·전남지역 7월 중 주식 투자자의 거 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일 내놓은 '2016년 7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6억1195만주로 전월보다 13.92%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3조1180억원으로 전월보다 12.84%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은 2.13%로 전월보다 0.12%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1.

65%로 전월보다 0.06% 감소했다.

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우리종금, 키스톤글로벌, 쌍방울, 미래산 업, 페이퍼코리아, KODEX레버리지 등 의 순이었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영진약 품, KODEX레버리지, KODEX인버스, 쌍방울, POSCO, 삼성전자 등으로 나타났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아이이, 이화전기, 셀루메드, 이트론, KD건설, 세 종텔레콤 등의 순으로 올랐고 거래대금 상 위종목은 코데즈컴바인, 셀루메드, 아이 이, 셀트리온, 다날, 크리스탈 등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삼지토건·전남 도양기업 1위

#### 전문건설협, 지역 3999곳 시공능력 평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송성홍)와 전남도회(회장 정종오)는 지역내 전문건설업체 3999개의 시공능력 평가에서광주는 삼지토건(주)이 전남에서는 도양기업(주)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철콘 분야 삼지토건이 480억35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주) 가현건설산업(철콘·422억5000만원), 한 남유리(금속창호·419억9000만원), 광림 토건(토공·388억8400만원), 안산조경(조 경식재·364억4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토공 분야 도양기업(주)이 1262억14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동아에스텍(주)(금속창호·1115억89만원)과 해동건설(주)(준설·552억5900만원), 대야산업(주)(돌콩·511억2400만원), 도양기업(주)(철콘·422억1800만원), 대야산업(주)(철콘·23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직전 3개년간의 공 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의 자료 를 종합 평가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 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 연말까지 전국 150곳 전기차 충전기 300기 설치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150곳에 전기자동차를 빠르게 충전할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가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마포구 상 암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개방형 충전 소 착공식을 열고 연내 150개 부지에 전기 차 급속 충전기 300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2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 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7 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립한 '전기차 발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방형 충전소는 시민, 전기 택시 및 전기 렌터카 운전자 등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서울과제주 각 60개소에 120기씩 모두 240기, 기

타 지역 30개소에 60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은 이날 착공에 들어간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약80개 부지에 180기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나머지 충전기도 11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충전기 이용요금은 전력 공급원가, 소 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추후 책정된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가에는 대규모 충전 소 5곳이 들어선다. 이들 충전소는 다양 한 업종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참여해 충 전뿐 아니라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운영된 다. /연합뉴스

## 소비자 물가 상승…생활물가는 보합

#### 광주·전남 물가지수 전월비 0.2% ↑ …채소류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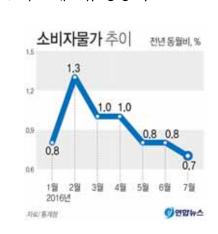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 수가 전월과 전년 동월에 비해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 가지수는 110.23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7%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년도는 2010년(100)이다.

7월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107.28로 전월과 전년 대비 각각 보합세를 나타냈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 품이 각각 2.0%, 0.2% 상승했고 서비스 는 0.1% 올랐다. 특히 상추(76.7%)와 오 이(51.5%), 호박(28.1%), 시금치(27.2%) 등 채소류가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며 신 선식품지수도 전월 대비 3.1% 상승했다.

7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9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



비 0.7% 각각 상승했다.

제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8.07로 전월 대비 0.0% 보합,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을 기록했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월 대비 0.9%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보합 세를 나타냈다. 집세와 개인서비스 등 서 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 물가는 신설 내미 0.2% 성능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추석 선물세트 예약 하세요"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 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의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24일간 사전 예약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추석을 40여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24일간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